

'스산한 서울, 아픈 청춘'

2013년 6월 17일 @ 9:49 오전 분야: [문화/연예](#) | [No Comments](#)



'스산한 서울, 아픈 청춘'

[앵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르한 파묵은 평생 이스탄불에 살면서 이스탄불 곳곳을 글 속에 녹였는데요.

화가 노충현은 계절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서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송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등성등성한 나무 사이로 한강변을 걸어가는 한 사람.

점과 같이 작은 그이건만 거대하고 황량한 자연을 마치 어깨에 이고 가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수마에 휩싸인 한강변에선 질푸른 나무만이 힘겹게 얼굴을 드러내고 황량한 유수지를 지키는 쓸쓸한 가로 등만이 '밤눈'을 반길 뿐입니다.

희망의 빛이 다가오지 않는 곳. 가난과 쓸쓸함이 묻어나는 그곳은 세계적 메트로폴리스 서울.

작가 노충현은 대도시의 녹록지 않은 삶을 풍경 속에 그리고 점으로 변한 사람 속에 힘겹게 불어 넣습니다.

<인터뷰 : 노충현 / 화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서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회화로 옮겨놓은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풍경들에 대한 애정 같은 걸, 그런 것들을 담아 그리다보니..."

웅얼거리며 에둘러 '서울의 슬픔'을 말하는 노충현에 비해 신진 작가 김혜진은 청춘의 부유하는 생각을 속 사포처럼 토해냅니다.

깊은 잠에 빠진 여인.

푸른 벚꽃을 거닐며 희망을 떠올리지만 꽃처럼 화려하게 비상해야 할 그녀에겐 다리가 없습니다.

희망 속에 깃든 절망 앞에 반쯤 고개 숙인 여인.

성가신 인연의 끈으로 매듭지어진 세월. 아픈 이십대는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인터뷰 : 김혜진 / 화가> "제 정신이, 마음이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로 가 있었을 때, 그때의 시간을 '루시드 드림'이라고 명명했고, 저에겐 치유가 많이 된 전시회예요."

뉴스Y 송광호입니다.

(끝)